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 고령층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전체 연령 대비 2배 이상이다.
- 고령층 사망의 외인 항목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살, 운수사고, 낙상이다.
- 고령층 안전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 고령자 교통사고 중에는 보행자 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다.
- 고령자들은 국가안보, 신종질병, 자연재해에 대하여 전체 집단에 비하여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준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함께 신체적 안전 상황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안전 상황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 안전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고령자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사망의 외인, 교통사고, 낙상, 주관적 안심 수준 등 고령자 안전사고 주요 부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일부 가능한 항목은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 안전의 상대적 수준을 진단한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은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기준 연령인 65세로 하나 일부 국제 비교를 위해 55세 및 75세 등을 적용하기도 할 것이다.

고령자의 사고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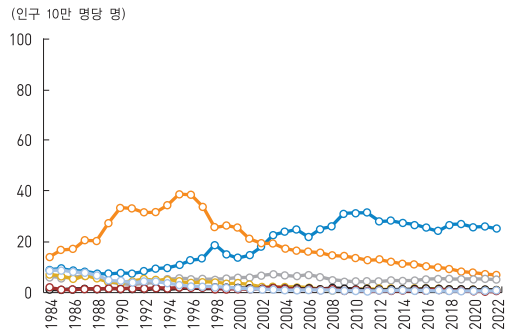
한국의 고령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고령자 통계」, 2023), 더 이상 가족들의 부양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전통적 가부장 문화가 약화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도 낮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10만 명당 41.7명)이 OECD 평균(10만 명당 16.3명)의 3배에 가깝다는 것은 한국의 고령자들이 겪는 고충을 잘 보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U12)” 항목에 포함된다. 결국 사망의 외인이란 운수사고,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 자살, 그리고 타살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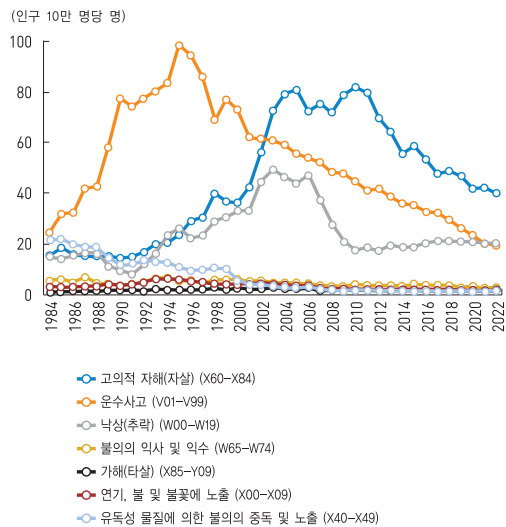


[그림 X-14]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1984-2022

1) 전체 인구



2) 65세 이상



주: 1)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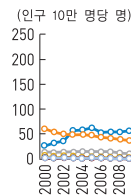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2022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52.1명으로, 2021년 50.9명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2009년 65.8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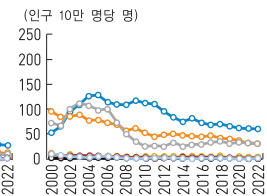
고 있다. 사망의 외인 항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살, 운수사고, 낙상(추락)이며, 그 뒤를 이어 익사, 타살, 화재사, 중독 순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전체 인구 집단과 유사하게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연령 대비 2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20.0명)이 전체 인구(5.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X-14).

[그림 X-15] 고령자 연령별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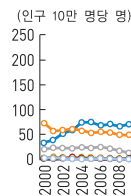
1) 65~6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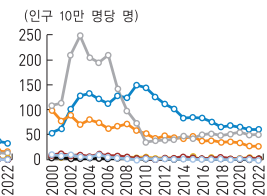
4) 80~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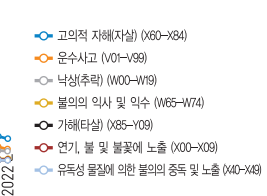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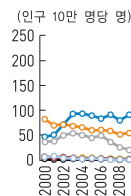
2) 70~74세



5) 85~89세



3) 75~79세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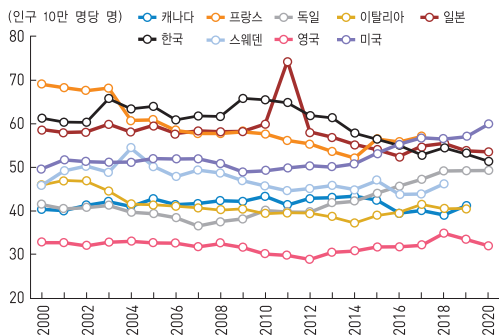
[그림 X-15]는 고령자 집단을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령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감소하는 대신 집안에서의 낙상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망의 외인 항목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X-16]과 같다. 인구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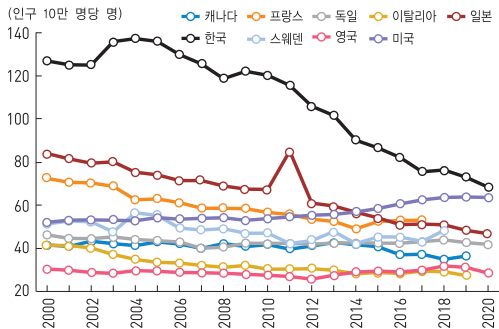
사망의 외인 사망률의 경우 2000년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고령층(55~7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16] 주요 국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0

1) 전체 인구



2) 55~74세



주: 1) ICD-10 codes: V01-Y89 (minus X41-X42, X44-X45), U12.9

2)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로서 국내 통계청 공표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출처: WHO Mortality Database Portal, 202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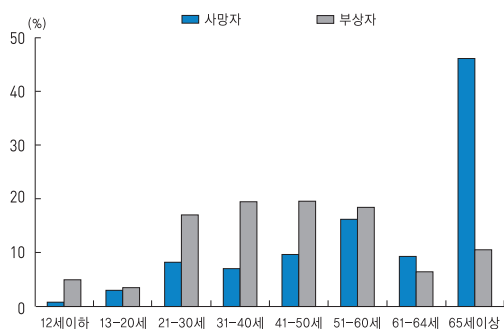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과 관련하여 자살을 제외하고 고령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교통사고(운수사고)와 낙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에서 접수·처리한 교통사고와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처리한 교통사고를 통합한 자료를 제공한다(도로교통공단, 2023).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의 1만 3,429명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25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상자 비율을 비교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X-17).



[그림 X-17]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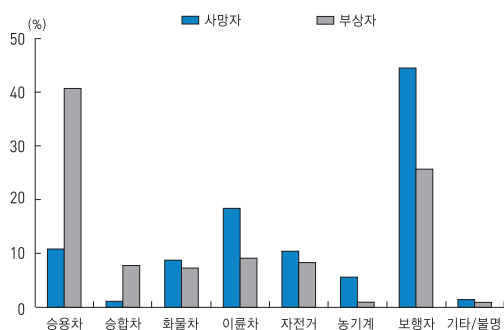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를 집계함.

2) 부상자는 연령 '불명'을 제외하고 구성비 산정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승차차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보행자 사망이 가장 많고(44.4%), 뒤를 이어 이륜차(18.3%)와 승용차(10.7%) 사망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X-18).

[그림 X-18] 승차차종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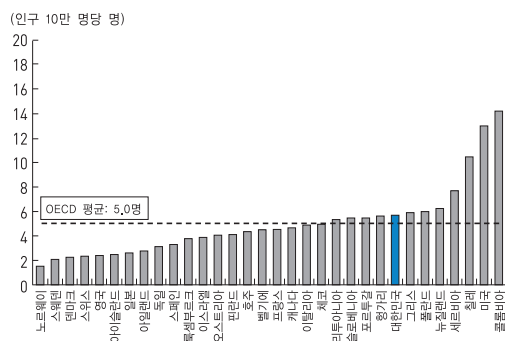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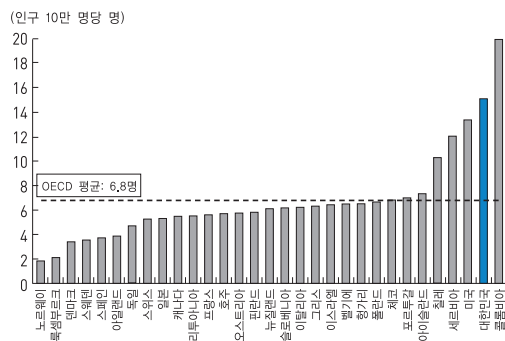
은 전체 연령 집단에서도 OECD 평균(5.0명)에 비해 우리나라(5.6명)가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OECD 평균에(6.8명)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15.1명)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X-19).

[그림 X-19] OECD 주요국가의 교통사고 사망률, 2021

1) 전체 인구



2) 65세 이상 인구



출처: ITF Transport Statistics, *Casualties by age and road user*, 2023, 8.

낙상

고령자는 신체의 노화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관련 위해품목 및 장소의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령자 낙상사고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사고는 가정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계와 관리가 쉽지 않다. 한편, <표 X-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2022년 기준 73.0%).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특히 미끄럼 사고가 많은 편이다.

<표 X-5>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장소별 접수 현황, 2019-2022

	(건)							
	2019		2020		2021		2022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주택	2,737	72.9	2,879	77.4	2,519	72.5	3,607	73.0
도로 및 인도	179	4.8	278	7.5	237	6.8	379	7.7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75	4.7	112	3.0	136	3.9	160	3.2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59	4.2	108	2.9	76	2.2	113	2.3
의료서비스 시설	78	2.1	88	2.4	77	2.2	112	2.3
교통시설	100	2.7	71	1.9	55	1.6	106	2.1
기타 ¹⁾	327	8.7	185	5.0	374	10.8	461	9.3
계	3,755	100.0	2,266	100.0	3,474	100.0	4,938	100.0

주: 1) 쇼핑시설, 숙박 및 음식점, 레저시설, 확인되지 않는 장소 등을 말함.
2) 이 데이터는 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중 위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으로 전수조사 통계가 아님.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023.

<표 X-6>은 고령자 낙상사고 품목별 접수 현황이다. 천장재 및 바닥재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바닥재 사고이다. 바닥재 사고 중에서도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사고가 약 50%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고령자 낙상사고의 많은 수가 가정 내 타일 바닥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X-6> 고령자 낙상사고 품목별 접수 현황, 2019-2022

	(건)			
	2019	2020	2021	2022
천장재 및 바닥재	1,851	2,155	1,952	2,644
침실가구	489	366	345	574
자전거	171	272	325	343
리프트 시설	122	107	120	267
샤리리 및 비계	61	62	127	167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023.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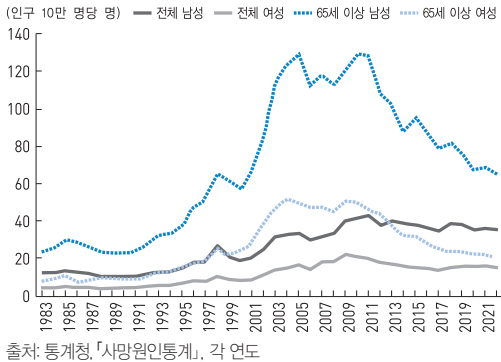
자살은 안전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WHO나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자살이 사망의 외인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X-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살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편이며, 65세 이상 고령층 남성의 자살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고령자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5.0명으로 여성 고령자(20.4명)의 3배, 남성 전체(35.3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결국 우리나라 자살의 많은 부분이 고령 남성층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고령층의 자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X-20] 자살 사망률, 1983-2022



주관적 사회안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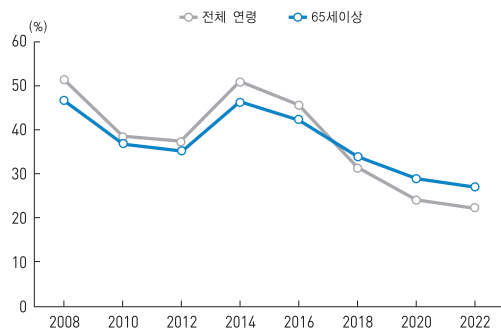
신체적, 물리적 안전과 함께 주관적, 심리적 안심 여부 역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주관적, 심리적 안심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부문별 안전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 집단의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인식도 변화 추이는 [그림 X-21]에 제시했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주요 사건, 사고에 따라 크게 출렁거려 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고, 이

후 점차 개선되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불안감이 다시 한번 크게 증폭되었다.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이는 국민들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의 사회안전 인식은 전체 인구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하여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응답도 전체 인구 집단과 고령자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국가안보, 신종질병, 자연재해에 대하여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하여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신종질병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19의 취약 집단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X-22).

[그림 X-2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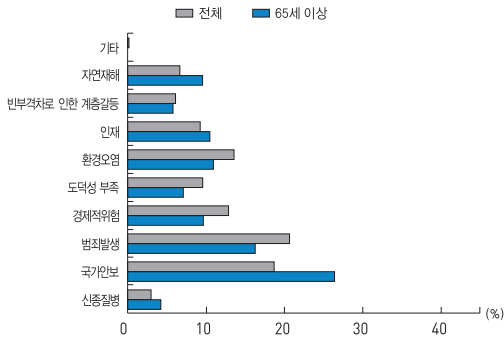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12년 이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지 않음' 또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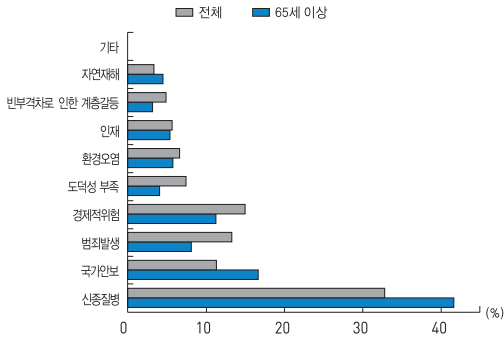


[그림 X-2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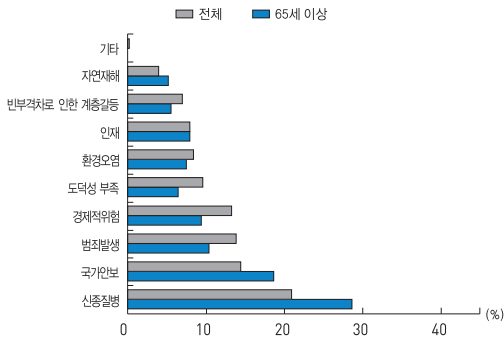
1) 2018년



2) 2020년



3) 2022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주된 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맺음말

「사망원인통계」의 종단적 비교와 해외 국가들과의 횡단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0년도 초반 약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교통사고도 최근 3,000명 이내로 감소하였고 자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사 항목 역시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고령자 안전 문제 역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국가들과 횡단적 비교 결과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대상의 각종 맞춤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기조 역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안전관리 계획인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총 4개의 전략 중 첫 번째로 ‘포용적 안전관리’를 제시하고, 이 전략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서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이 정책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사고의 핵심이 보행자 문제임을 생각할 때 노인보호구역 설정은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류준범·이세원·심태일·이송이, 2022).

한편 고령층 주요 안전사고 중 하나인 낙상은 일상생활 환경, 특히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여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의 확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정책 역시 대부분 낙상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상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낙상사고의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환경(보행보조 장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바닥 및 조명 정비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일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의 안전은 바로 모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 정책 개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도로교통공단. 2022. 「2022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21년 통계)」.
 류준범·이세원·심태일·이승이. 2022.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운영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2022. 「2021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